

2024-03-25 (2024-13호)

03월 25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급부상한 강달러·약위안 모멘텀, 그리고 분기말 수급 불확실성

서울, 3월2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강달러와 약위안 확산 정도를 살피며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는 상단의 강한 저항을 뚫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25-1,350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올해 금리인하 횟수 유지에 잠시 약세 압력을 키웠던 달러는 스위스중앙은행의 깜짝 금리인하가 촉발한 주요국의 통화완화 기조에 급하게 강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폐지에도 엔 강세를 견인할 만큼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 따른 엔 약세와 갑자기 위안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시그널을 보낸 중국인민은행의 태도 변화에 강달러는 더욱 힘을 받았다.

위안과 동조화 정도가 높은 원화는 상단 저항이 풀린 달러/위안 탓에 약세 압력을 급격히 높였다. 그 결과 달러/원은 주요 저항선인 1,340원대를 상향 돌파하려는 시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말 역외거래에서 달러/원은 1,340원대로 추가 상승했는데 이번 주 달러 강세와 위안 약세 모멘텀이 더 확대된다면 그간 단단하게 막힌 상단이 상향 돌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달러/원은 1,346.7원에 연고점을 찍은 이후 1,340원대를 박스권 상단으로 고정해왔다.

달러/위안이 별다른 상단 저항을 받지 않고 7.3위안대로 레벨을 높인다면 달러/원도 단기 고점 찾기에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외환당국의 시장 대응에 시장참가자들 관심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 공세를 펼치는 외인 덕에 달러/원 상승 속도가 조절 중인 가운데 달러/원 연고점 부근, 그리고 분기말 수급 무게중심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큰 변수다. 통상 분기말 주식 관련 수급이 원화 변동성을 자극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 주 가장 주목받는 경제지표는 미국의 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지만, 주 후반에 발표되는 만큼 이에 앞선 경계감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구재주문과 주택가격, 주간 고용지표 등에 따라 달러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크다.

아울러 주요 연준 위원들을 비롯해 주 후반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주목된다.

또한, 한동안 둔감했던 중국의 달러/위안 환율 고시를 전후해 시장의 흔들림도 감안해야한다. 올해 1월 이후 박스권에서 비교적 암전한 움직임을 보여온 달러/원의 상승 변동성 흐름이 재개될지 주목되는 1분기 마지막 주가 될 전망이다.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도비시한 연준에 확대되는 증시 랠리

뉴욕, 3월25일 (로이터) -

긍정적인 경제 전망과 연방준비제도의 도비시한 신호는 지난 1년간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끈 대규모 성장주와 기술주 이외에도 다른 부문으로도 눈을 돌리도록 부추기고 있다.

올해 엔비디아, 메타플랫폼 등의 랠리가 시장의 주요 동력이었지만, 금융, 산업, 에너지 부문도 올해 들어 S&P500지수의 상승률 9.7%보다 나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는 시장이 일부 종목의 운명에 점차 더 얽매이고 있다는 우려를 덜어주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동안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자자들은 대형주 외의 종목에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찾기 시작했다. 지난주 초 연준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 서도 올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이러한 시각은 더 힘을 얻었다.

씨티의 스콧 크로너트 미국 주식 전략 헤드는 "연준이 경기 침체 없이 장기 목표에 근접하는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이 언젠가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은행이나 산업주 보유에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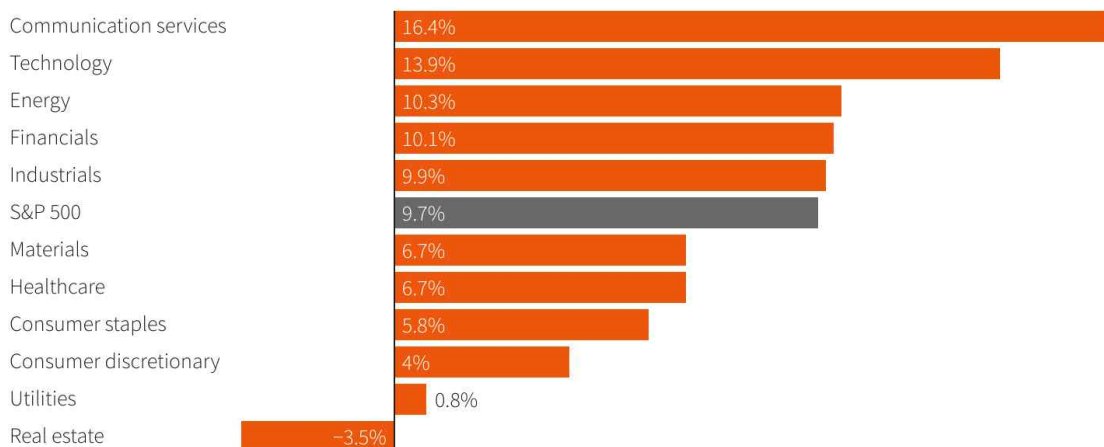
이번 주 투자자들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주시할 것이다. 또 분기말을 맞아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이 업계 지배적 지위와 탄탄한 재무제표에 이끌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대형주에 몰렸던 작년과는 대조적으로 랠리가 확대되고 있다. 기술, 통신서비스, 재량소비재 등 대형주가 속한 섹터만이 지난해 S&P500지수의 상승률 24%를 상회했다.

올해 금융과 산업 섹터는 각각 10.1%와 9.9% 상승했고, 에너지 섹터는 10.3% 상승했다.

Broader strength

More S&P 500 sectors are outperforming the benchmark stock index so far in 2024 than last year



Note: Year-to-date performance, as of March 22

Source: LSEG | Graphic by Lewis Krauskopf

S&P다우존스인덱스에 따르면 21일 현재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 아마존닷컴 등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S&P500지수 상승의 40%를 차지했다. 작년의 60% 이상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로버트 파블릭 다코타웰스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랠리 폭이 넓어진 것은 "리더십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조정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2023년 모두 큰 상승을 기록한 이후, 올해에는 이들 종목 간의 성과가 격차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에게는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이유가 되었다.

인공 지능에 대한 기대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는 90% 상승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4.5% 상승했다. 반면 애플과 테슬라는 올해 들어 각각 11%, 32% 하락했다.

S&P500지수의 상승률을 증가하는 종목이 작년 150개였던 것에 비해 21일 현재 180개로 더 많은 것도 랠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소형주 등 일부 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모습이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연초 대비 2.2% 상승에 그쳤다.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의 세 차례 25bp 금리 인하 전망 유지에 힘입어 소형주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잭 애블린 크리셋캐피탈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창출되고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금리에 상관없이 자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대형주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소형주들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너무 과열되면 최근 몇 달 동안 시장을 지탱해온 소위 골디락스 스토리가 뒤집히면서 상승세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10월 말 이후 S&P500 지수가 27% 상승해 시장이 후퇴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투자자들은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다. 피터 터즈 체이스인베스트먼트 카운슬 사장은 최근 골드만삭스와 석유 서비스업체 타이드워터의 주식을 매입하고 애플 지분을 매각하는 등 메가캡 보유 지분을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면서 "올해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3월25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먹거리 물가동향 및 물가안정 대책 효과 현장점검 (10:1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외 출장(~28일, 폴란드)

3월26일(화)

- ⊙ 한국은행: 2024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06:00)

3월27일(수)

- ⊙ 한국은행: 2024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한국은행: 2024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잠정) (12:00)
- ⊙ 통계청: 2024년 1월 인구동향 (12:00)

3월28일(목)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금통위 본회의 (09:00)
- ⊙ 금융감독원: 원장 FSS SPEAKS 2024 (09:30)
- ⊙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11:00)
-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폴란드·오스트리아 출장결과 (12:00)
- ⊙ 기획재정부: 1차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14: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15:00)
- ⊙ 기획재정부: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15:00)
- ⊙ 한국은행: 2024년 4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17:00)
- ⊙ 기획재정부: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17:00)

3월29일(금)

- ⊙ 통계청: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 (11:30)
- ⊙ 한국은행: 2023년도 연차보고서 정부 제출 및 공표 (12:00)
- ⊙ 한국은행: 2023년 4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시장안정화를 위하여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실시한 외환 순거래액 (16: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3월25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3월18-25일		중국	FDI (YTD)	2월		-11.70
3월25일	21: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2월		1.518M
3월25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2월		-0.30
3월25일	23:00	미국	신축주택판매	2월	0.680M	0.661M
3월26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2월	1.0%	-6.2%
3월26일	22: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1월		0.1%
3월26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20 주택가격 MM SA	1월	0.2%	0.2%
3월26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3월	106.7	106.7
3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2월		-2.3%
3월27일	19: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3월		-0.42
3월27일	19: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3월	96.4	95.4
3월27일	19: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3월	-14.9	-14.9
3월27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3월22일 주간		198.2
3월28일	18:00	유로존	총유동성(M3) 증가율	2월	0.3%	0.1%
3월28일	18:00	유로존	가계대출	2월		0.3%
3월28일	21:30	미국	GDP 확정치	4분기	3.2%	3.2%
3월28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월18일 주간	215k	210k
3월28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3월	46.0	44.0
3월28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3월	76.5	76.5
3월28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	2월	1.5%	-4.9%
3월29일	08:30	일본	도쿄 CPI	3월		2.6%
3월29일	08:30	일본	실업률	2월	2.4%	2.4%
3월29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SA	2월	1.4%	-6.7%
3월29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2월	3.0%	2.3%
3월29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2월	0.4%	1.0%
3월29일	22:30	미국	소비 MM	2월	0.4%	0.2%
3월29일	21:30	미국	PCE 물가지수 MM	2월	0.4%	0.3%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3월25일 (월)

- ⊙ 일본은행 1월22-23일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오전 8시5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EIB그룹 기후 및 환경자문위원회 참석 (오후 7시)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신시내티대학교 부동산센터 라운드테이블 참석 (오후 9시25분)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야후파이낸스 인터뷰 (오후 10시5분)
-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하버드대 행사서 강의 (오후 11시30분)

3월27일 (수)

- ⊙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뉴욕경제클럽서 연설 (28일 오전 7시)

3월28일 (목)

- ⊙ 일본은행 3월18-19일 회의 주요 의견 요약 (오전 8시50분)

3월29일 (금)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 컨퍼런스 환영사 (30일 오전 0시15분)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 컨퍼런스 토론 참석 (30일 오전 0시30분)
- ⊙ 휴장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홍콩 등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그래프/분석) - 스위스, 깜짝 금리 인하... 다음은 어디?

런던, 3월22일 (로이터) -

스위스 중앙은행은 21일(현지시간)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이는 도비시한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의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이번 주 두 번째로 의미있었던 중앙은행의 결정이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75bp의 금리 인하 전망을 고수했고, 영란은행은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경제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에 대한 주요 중앙은행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Who will cut rates next?

Markets currently expect that the Riksbank will be next to cut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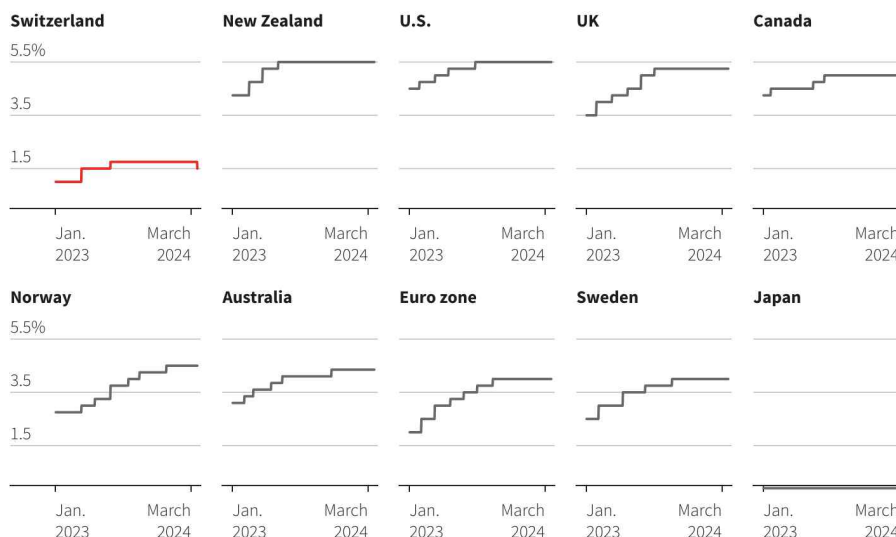
Bank	Month for which markets price in over a 50% chance of move
Riksbank	May
European Central Bank	June
Fed	June
Bank of Canada	June
Bank of England	June
Reserve Bank of New Zealand	August
Reserve Bank of Australia	August
Norges Bank	September
Bank of Japan*	June

Note: *The BOJ hiked rates on March 19 and markets price a 40% chance of another hike in June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March 21, 2024

The race to cut rates has started

The Swiss National Bank is the first major central bank to ease monetary policy.

Change in policy rates by central banks overseeing the 10 most traded currencies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March 21, 2024 | By Sumanta Sen

1.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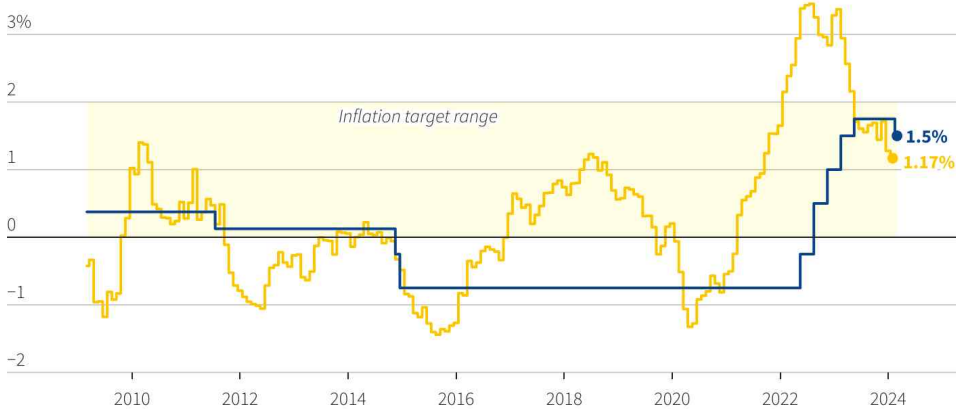
스위스 국립은행은 21일 금리를 1.5%로 25bp 깎아 인하해, 스위스 국채가 랠리를 보였고 유로 대비 스위스프랑 가치는 8개월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9년 만에 단행된 첫 금리 인하로, 2월 인플레이션율이 1.2%로 하락해 9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SNB의 목표 범위인 0-2% 이내로 유지된 데 따른 조치다.

Swiss National Bank makes surprise rate cut

The Swiss National bank cut its main interest rate by 25 basis points to 1.5% on March 21, making it the first major central bank to ease monetary policy.

SNB policy rate | CPI (Y/Y)



Note: Policy rate data through March 2024 and CPI data through February 2024.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March 21,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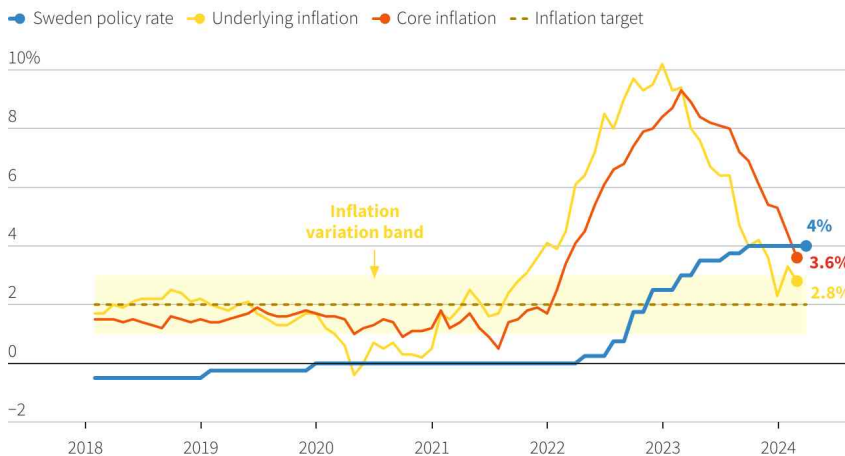
2. 스웨덴

2월에 기준금리를 4%로 동결한 스웨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된다면 첫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정책회의는 3월27일로 예정돼 있고, 이코노미스트들은 5월 또는 6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wedish rate cuts are coming as inflation eases

The Riksbank meets next week.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Mar. 21, 2024 | By Vineet Sachdev

3. 유로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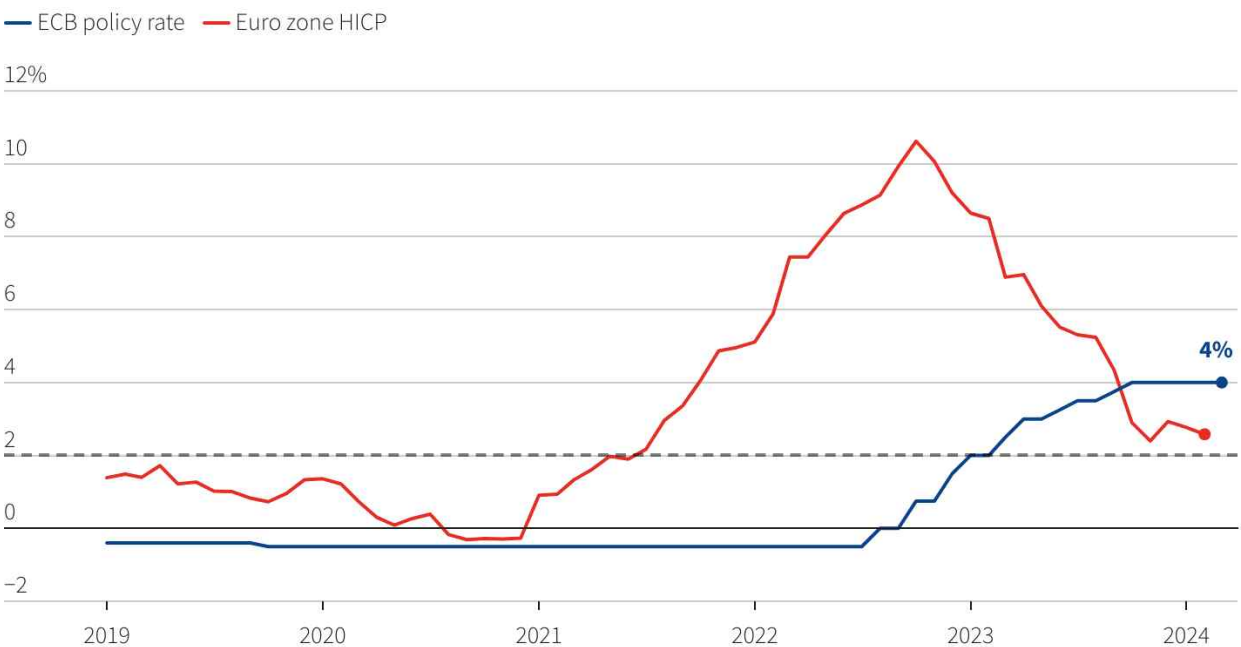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초 금리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몇 달 전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고 밝혀 금리 인하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장에서는 올해 약 90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6월에 첫 인하가 단행될 확률은 약 80%로 반영돼 있다. 일부 ECB 정책 결정권자들은 이러한 전망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의 금리 인하 베팅은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CB는 연준보다 먼저 인하할 경우 유로 약세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ECB holds rates at 4%, nods at cooling inflation

The ECB says inflation is easing faster than anticipated.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March 21, 2024

4. 미국

연준은 20일 금리를 5.25-5.5%로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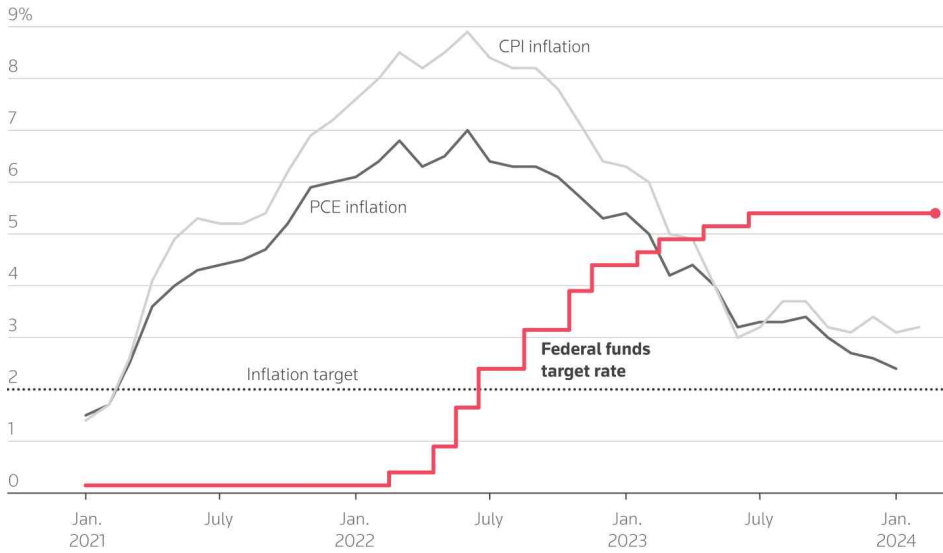
결정 자체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연준이 올해 세 차례 25bp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는 한편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으로 인해 물가 압력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이야기가 바뀌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시장은 2024년 미국 금리 인하폭을 연초의 150bp보다 줄어든 약 75bp로 반영해, 대체로 연준의 시각과 발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 인하는 6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낙관적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과거 거품에 수반되었던 투기보다는 견고한 펀더멘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경제의 호조,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금리 인하 기대, 인공지능의 사업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 등이 그 이유로 자주 언급된다.

Fed keeps rates steady

U.S. inflation is moving down gradually on a sometimes bumpy road to 2%, Fed Chair Jerome Powell has said.



Note: The federal funds rate is plotted according to the midpoint of the official range. Inflation rate is annual change.
Sources: LSEG Datastream, Federal Reserve
Prinz Magtulis • March 20, 2024 |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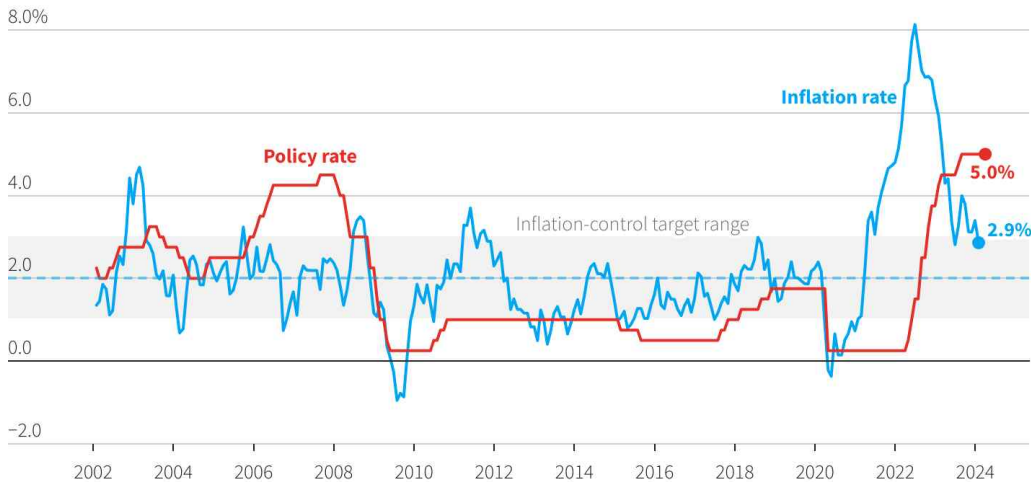
5. 캐나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다음 금리 결정은 4월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기준금리를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3월 초 금리를 5%로 유지했으며, 기조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약 60bp 인하를 예상하고, 첫 인하 시기는 6월이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Bank of Canada holds rates in March

The Bank of Canada held its key overnight interest rate at 5% with governor Tiff Macklem declaring it's "still too early" to consider lowering the policy rate.



Note: Inflation data through January 2024. Data frequency is monthly.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March 7, 2024 | By Riddhima Talwani

6.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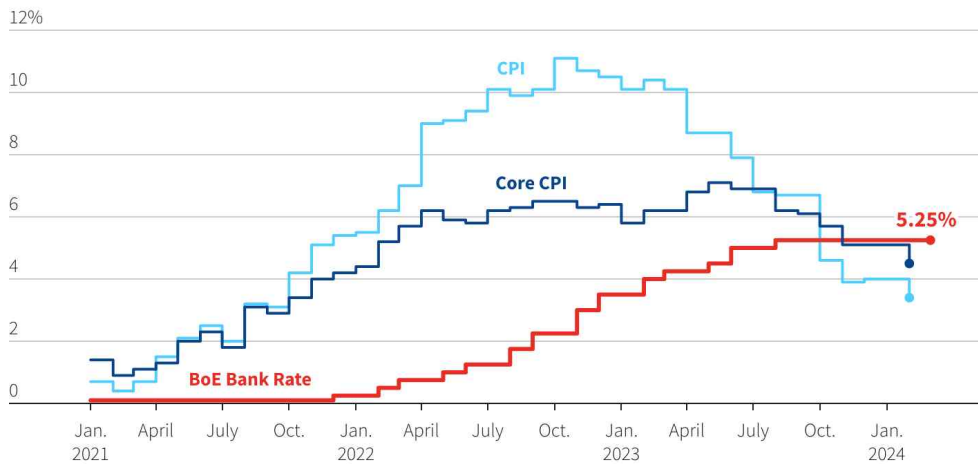
영란은행은 21일 금리를 16년 만의 최고치인 5.25%로 동결했지만 앤드류 베일리 총재는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두 명의 정책 결정권자가 금리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다.

시장은 6월까지 25bp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인하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약간 더 높게 보고 있으며, 9월까지 세 차례 회의에서 금리가 두 번 인하되리라는 전망을 온전히 반영했다.

BoE keeps Bank Rate unchanged

The Bank of England kept interest rates unchanged and said that the economy wa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for rate cuts.



Note: Inflation data through February 2024.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March 21, 2024 | By Sumanta 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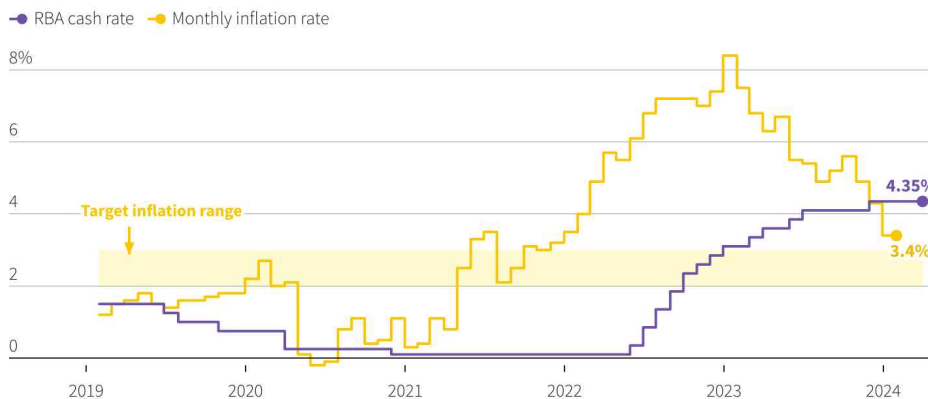
7. 호주

호주 중앙은행은 19일 금리를 12년 만의 최고치인 4.35%로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에 대한 경고를 삭제해 스탠스를 완화했다.

시장에서는 8월이나 9월에 첫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stralia's central bank holds rates in March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held its cash rate at 4.35% in March and watered down its tightening bias



Note: Monthly inflation data available till January 2024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March 19, 2024 | By Riddhima Talwani

8. 뉴질랜드

크리스찬 호크스 뉴질랜드 중앙은행 부총재는 이달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15년 만의 최고치인 5.5%의 금리가 당분간 제약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4월에 있을 다음 회의 전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지난주 향후 몇 년간 경제 성장이 이전 예상보다 "상당히 느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New Zealand's central bank is on hold for now

New Zealand's central bank kept the cash rate steady at 5.5% in its February meeting and trimmed the forecast peak for rates, toning down its hawkish stance.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March 7, 2024 | By Riddhima Talwa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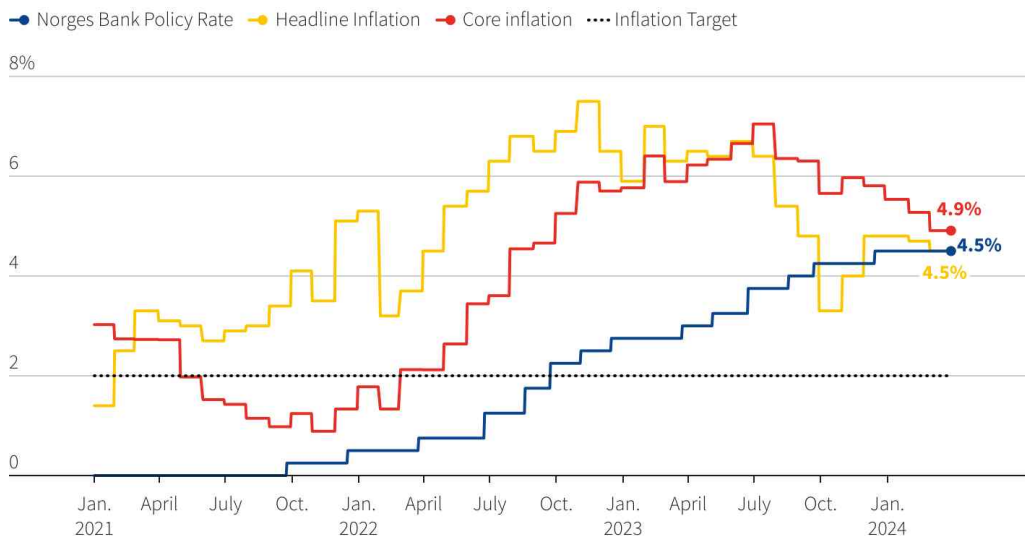
9. 노르웨이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21일 예상대로 금리를 4.50%로 동결했으며,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올해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9월에 한 차례, 연말에 한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orway keeps interest rates steady

The central bank kept the benchmark interest rate unchanged and signaled it plans just one cut this year.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Mar. 21, 2024 | By Vineet Sachdev

10. 일본

일본은행은 8년 간의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금리를 0-0.1% 범위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수익률 곡선 제어(YCC) 정책을 폐지했다.

인플레이션율이 1년 넘게 일본은행의 목표치를 웃돌면서 3월이나 4월에 금리 인상이 예상됐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이 마침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났다는 일본은행의 자신감의 표시였다.

Bank of Japan exits ultra-loose monetary policy

The BOJ ended negative interest rates, bringing its decade-long massive stimulus programme to a close. The Bank set the overnight call rate as its new policy rate and will guide it in a range of 0-0.1%.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March 21, 2024 | By Pasit Kongkunakornkul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 - BOJ 금리 인상에도 엔 매도 유혹하는 캐리 트레이드

싱가포르, 3월21일 (로이터) -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끝났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엔에 대한 매도 베팅은 끝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지난 19일 BOJ의 결정은 기념비적인 변화였지만, BOJ는 도비시한 어조를 고수하며 "안화적인 금융 조건"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트레이더들은 다시 인기 있는 엔 '캐리 트레이드'에 뛰어들었고, 이미 약세를 보이던 엔 가치는 20일 더 절하됐다.

샤팔리 삭데브 BNP파리바웰스매니지먼트 아시아 투자 서비스 헤드는 "일본은 여전히 G10 국가 중 가장 금리가 낮다"면서 "따라서 이벤트 리스크가 사라진 지금이 캐리 포지션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개월 달러/엔 캐리 트레이드의 경우 연 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캐리 트레이드를 위해 엔을 빌리려는 러시는 20일 가격 움직임에 분명하게 반영됐다.

엔 가치는 20일 달러 대비 4개월 만의 최저치, 유로 대비로는 16년 만의 최저치, 파운드 대비 2015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충격과 공포 방식을 사용했던 전임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와 달리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투자자들을 잠재적 움직임에 대비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엔 절하는 부분적으로 '팩트에 매도'하는 거래에 따른 것이었다.

찰스 헵워스 GAM인베스트먼트 투자 이사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었던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이 지난 며칠 이미 시장에 유출된 내용으로 인해 결국 상당히 조용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본과 다른 선진국 금리 간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는 5.25-5.5%이며, 다른 주요국의 금리도 4%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극명한 금리 격차로 엔 캐리 트레이드가 선호되고, 엔이 절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엔 가치는 2023년 1월 고점 대비 16% 하락했다.

BNP파리바의 삭데브는 "가장 활발한 거래는 달러, 호주달러, 뉴질랜드달러에 대한 거래이다...이는 캐리가 유리한 단기 거래"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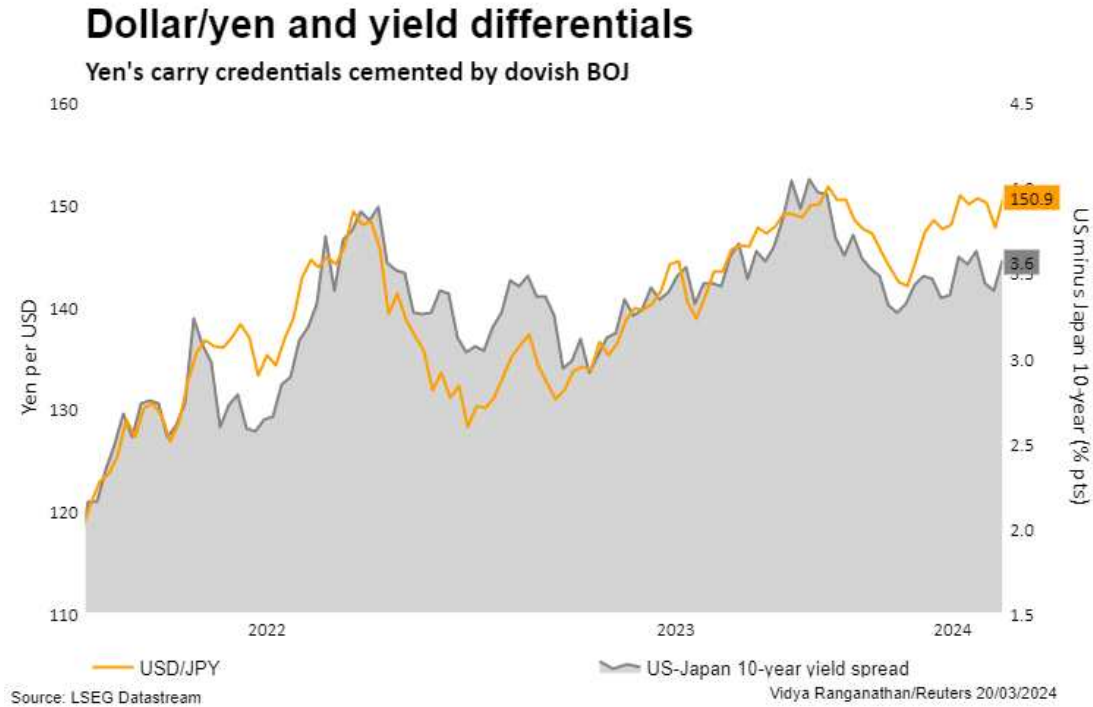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준이 조만간 금리 완화 사이클을 시작할 가능성이 낮아 투자자들이 엔을 통해 조달한 포지션을 쌓고 싶어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3개월 달러/엔 내재 변동성은 약 3개월 만의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태다.

HSBC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엔 매도가 결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달러가 하락하고 엔이 절상되면 엔 캐리 트레이드의 수익률은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BOJ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도 엔 강제로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가레스 베리 맥쿼리그룹 외환 및 금리 전략가는 "연준과 BOJ가 거의 동시에 정책 설정을 움직일 때마다 환율 움직임을 지배하는 것은 항상 연준"이라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해외전문가의견) - BOJ, 역사적 정책 전환에도 신중한 움직임

3월19일 (로이터) -

일본은행(BOJ)이 19일 8년간의 마이너스 금리와 기타 비정상적인 정책의 잔재를 끝내고 수십 년 동안의 대규모 통화 부양책에서의 역사적 전환을 발표했다.

다음은 BOJ의 정책 결정과 관련한 해외 전문가들의 코멘트이다.

◆ 이즈루 카토, 토탄 리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

"BOJ가 정상화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움직임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BOJ가 장기 수익률 급등을 피하기 위해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BOJ는 물가 안정 목표인 2% 달성이 가시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경제와 물가에 대한 BOJ의 시각이 낙관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금리 인상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제임스 니베튼, 컨버라 수석 기업 외환 딜러, 컨버라

"BOJ는 오늘 정상화 복귀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다. 발표 후 엔화가 약세를 보였는데, '사실에 판

다'는 테마에 따른 듯하다.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금리 차는 여전히 달러/엔 통화쌍에서 달러에 크게 유리하다."

◆ 차루 차나나, 삭소 FX 전략 헤드

"코멘터리에 따르면 완화적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엔화는 여전히 수익률 격차 플레이에 남아 있으며, 미국과 일본 수익률의 큰 차이를 좁히는 데 더 큰 역할은 BOJ가 아니라 연준 측에서 해야 할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된 새로운 시대는 일본 경제의 회복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내 저축과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커지고 일본 증시가 모멘텀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 바트 와카바야시, 스테이트 스트리트 도쿄 지점 매니저

"역사에 남은 순간이다. 그러나 달러/엔은 30포인트밖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소문에 사고, 사실에 판다'로 볼 수 있다. BOJ가 이번에는 충격과 공포의 접근 방식을 택한 것 같지는 않다."

"가계와 소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음 큰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점을 감안하면 BOJ가 발표한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노리히로 야마구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선임 이코노미스트

"지금까지는 놀랄 만한 일이 없었다. 최근 현지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을 고려하면 모두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당분간은 이번 회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TF와 REIT 보유 규모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오히려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금리 결정에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는 점에서 수익률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 드와이포 에반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 아시아태평양 매크로 전략 책임자

"BOJ는 마침내 정책금리를 마이너스에서 0~0.1% 범위로 조정하고 수익률 곡선 제어(YCC)는 폐지하는 두 가지 정책 조정을 단행했다.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BOJ는 단기 금리가 주요 정책 도구가 될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일본 국채 매입을 계속할 것이다. 표면상 수익률을 제한하기 위해 일본 국채 매입을 계속하면 상대 금리에 민감한 엔화는 제한적으로 지지된다."

◆ 히로후미 스즈키, SMBC 수석 FX 전략가

"널리 예상한 대로 BOJ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했다. 또한 YCC를 폐지하는 등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이번 결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이는 일본 경제가 인플레이션 경제로 진입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프레데릭 노이만, HSBC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

"오늘 BOJ는 정책 정상화를 향한 첫 번째 잠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한 것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났다는 BOJ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엔화 가치의 급락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인플레이션 회복의 주요 요인이다."

"YCC 폐기와 자산 매입 가이드라인 수정 등 BOJ의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조정은 단기적으로 BOJ의 통화 스탠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정책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신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단계이다. 아마도 BOJ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단기 금리를 의미 있게 더 올릴 수 없는 "제로에 갇힌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시장진단) - 서프라이즈 없었던 BOJ, 달러/원 단기 레인지 상단 테스트... FOMC 경계감 더 확대

서울, 3월19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

일본은행(BOJ)의 17년 만의 금리 인상에도 달러/엔이 강하게 반등하는 동시에 글로벌 달러가 상승 탄력을 높이면서 달러/원은 단기 레인지 상단으로 훌쩍 올라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BOJ는 19일 정책회의에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2016년 이후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났다. 이와 동시에 BOJ는 수익률 곡선 통제(YCC) 정책을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일본 부동산 투자신탁과 같은 위험 자산 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데다 BOJ는 성명서를 통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동일한 금액"의 국채를 계속 매입하고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매입을 늘리는 등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완화 여건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매파 섹채를 띄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웨스트팩 은행은 BOJ 결정에 대한 보고서에서 "획기적인 정책 변화에도 일본 국채 수익률이 엔 강세를 촉발할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적어도 다음 몇 달 동안 추가적인 정책 조정을 기대하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달러/엔은 150.30엔대로 약 0.8% 상승 중이다.

그러면서 시장참가자들은 엔 추세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의 의미있는 조정이 핵심이라면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 결정에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웨스트팩 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오늘 BOJ 결정이 엔화와 금리 스프레드 상황을 현저하게 뒤바꾸지 못한 가운데 며칠 후 FOMC에서 매파적인 경향이 나타난다면, 달러/엔은 2월과 3월의 최고치 150.85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리츠증권이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진단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엔화 절상폭이 추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 후 자금이 일본에 유입되어야 하지만 그런 가능성 제한적"이라면서 "실제 3월 이후 조기 정상화 경계감은 커졌으나 외환시장에서 엔화 선물 숏 포지션은 헤지펀드 중심으로 늘어난 상황이고, 엔화 미결제약정도 늘어나며 엔화 약세

압력 지속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달러/엔은 정상화에 2000년대 이후 역사적 상단이자 기술적 상단인 152엔에서 추가 상승하지 않되 연준의 인하 시그널이 확실해진 이후에야 달러/엔 145엔 이하로 절상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견조한 경제와 끈적한 고물가 현상에 6월 금리인하 확률이 50%선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미국 국제 금리와 달러는 연준 회의 경계감 속 상승 중이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단기 레인지 상단인 1340원대로 상승해 약 두달 여만의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글로벌 달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달러/원은 지난주에는 글로벌 달러 따라 박스권 하단을 낮추는 시도에 나섰지만 오히려 강한 반등 탄력 속 오름폭을 키웠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물가에 대한 경계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역내 수급도 이런 저런 매수가 확인되다 보니 환율은 잘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굳혀졌다"고 말했다.

HSBC는 최근 발간한 FX보고서에서 1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32억달러로 그간의 월평균 투자 규모인 20억달러를 크게 웃돌았고, 같은 기간 개인의 증권투자 규모는 11억달러로 제시하면서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과 관련한 외환수급을 주목했다.

한편, 이번 주 빅 이벤트인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달러/원의 상승 변동성이 한 차례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엔에 대한 재료가 소진됐다고 봐야 할 듯하다. 점도표가 실제로 하향 조정되거나 연준 의장이 예상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흔들린다면 달러/원 환율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점도표가 하향 수정된다는 게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지연된다는 의미에서 보면 달러/원 환율의 상단 자체는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을까 싶다. 1350원을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21일 네 번째 외환시장 연장 시범운영... 시나리오 방식 FX스왑 거래 실시

서울, 3월2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오는 7월 정식시행될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시범운영에 나선 당국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1일 4번째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한국시간 오후 6시에서 7시반 사이 정해진 시나리오를 토대로 FX스왑 거래(스왑넥)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 당국자는 "4월 FX스왑 실거래 테스트를 하기 전에 미리 시나리오 방식으로 거래를 해보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왑거래에 따른) 결제를 확인하는 측면도 있고 현물환 거래와 달리 스왑거래는 수기처리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생길지 보려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NON-CLS 결제를 확인해본다는 계획이다.

외환당국이 인가한 외국환중개사는 9곳이지만 이번 시범운영에는 한국자금중개와 서울외국환중개만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한 현물환 자율거래도 자정 넘어 실시하는데 지난 14일보다 참여기관 간의 거래가 더 많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RFI는 SSBT 홍콩과 런던으로 동일하다. 다만, 당국은 4월에는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RFI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20일 기준 RFI 15곳 등록 완료... 뉴욕멜론, BOA 추가

서울, 3월21일 (로이터) -

올해 7월부터 공식 시행될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앞두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이 진행 중인 가운데 21일까지 15곳 기관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따르면 오늘 기준 RFI로 등록한 곳은 SSBT 홍콩·런던지점, HSBC 싱가포르지점, CA-CIB 파리, MUFG 도쿄, SC은행 런던, 국민은행 싱가포르·런던지점, 미즈호은행 도쿄, 도이치은행 프랑크푸르트·런던·싱가포르지점, 하나은행 런던지점, 뉴욕멜론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으로 총 15곳이다.

외환당국은 상반기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RFI 등록을 3월29일까지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4~6월에도 최소 월 2회 이상 외환시장 구조 개선 시범거래 실시 - 외환당국

서울, 3월22일 (로이터) -

외환당국은 7월로 예정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정식 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4~6월에도 최소 월 2회 이상 시범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총 4차례 총 15개 기관(10개 국내외국환은행, 1개 증권사, 4개 RFI)이 2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런던시간대(18시~24시), 자정 이후(0시~2시) 현물환 및 외환스왑 시범거래를 차질없이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6월에도 최소 월 2회 이상 시범거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말까지 RFI 등록을 신청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등록 절차와 거래 준비를 마치고 시범거래 등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시범거래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협약하여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윤아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